# 학교 도서관의 현실적 매력*

이 덕 주
〈송곡여고 사서교사〉

괄자 이덕주 선생은 서울시사서교사협의회와 서울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의 사립학교 담당 총무, PC통신 하이텔내에 있는 작은모임 "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표를 맡고 있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오해에는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들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못한 사서교사들의 책임도 있다고 보아 이 글을 썼다고 한다.

■ 편집자주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그대 자신을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싶은가?
3. 아름다운 인간과계, 영향력 있는 삶을 원하는가?
4. 소외되지 않는 노동을 원하는가?
5. 여유와 레저와 자기개발을 원하는가?
6. 동지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가?
7. 이제 남은 일은?

## 1. 들어가는 말

내 인생에 쓰라린 경험 두가지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내가 취업희망 순위에 학교도서관을 적어냈을 때 사람들은 날 이상한 눈으로 보았다. "거기 사람 뽑지 않잖아?" "거긴 도서관도 아니래. 책창고 수준이야. 아니면 사서대우도 교사대우도 제대로 못받아. 자율학습 감독이나 하고 밤늦게

* 혹 학교도서관의 장점과 매력을 설명 하려다보니 다른 관종의 일부 부정적인 면들을 부각시킨 점은 문학적인 강조와 대조의 수사법으로 너그럽게 보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필자주

끝나고 그런데를 왜 갈려고 하는거야?" 이런 질문에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다.

이런 질문과 충고는 학교에서 사서교사로 근무하는 가운데서도 특히 동료 사서교사들로부터 끊이지 않았다.

"왜 젊은 사람이 고등학교엔 왔어? 빨리 시험준비라도 해서 어디 좋은 곳－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옮겨."

위에 예를 든 충고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나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하는 말들이었기에 귀가 얇았던 나는 제대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로 근무해보기도 전에 마음이 흔들렸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평범한 생활인이자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서 안정되고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었던 나는 '내가 계속 학교도서관에 근무해야 되나' 하는 회의와 고민에 직면하곤 했다.

그러나 때론 위와 같은 인생 선배들의 설득과 조언이 사서교사의 길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말들에 답변하고 반박할 근거를 찾으면서 학교도서관이라는 내 인생의 갈길을 다지게 해준 요소가 되기도 했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자리를 지금부터 7년전에 한번, 바로 몇달전에 한번 이렇게 두번 후배에게 소개해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번 다, 채용이 결정되어 단지 출근할 날짜만을 기다리는 단계에서, 그 후배들이 대학에도 채용이 되어 그리로 가 버린 것이다. 7년전 그 후배는 학과에도 열심이었고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아주 믿었던 후배인데 도서관 사서도 아닌 일반 행정직 자리임에도 사서교사 자리를 마다하고 대학으로 가버렸다. 그때 느꼈던 실망감과 배신감은 아직도 내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을 정도이다. 최근의 일은 소개해준 이와는 함께 대학생활의 고민을 나눈것도 아니고 대학도서관에 사서로 채용된 것이기에 그 유감의 깊이는 덜하나 역시 나에게 하나의 실망으로 다가왔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며 대학에 교수로 가는 것도 아닌데 도서관계에 퍼져있는 대학도서관 지향성과 학교도서관에 대한 오해의 벽이 무척 높음을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낄수 밖에 없었다.

위와같은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특히 학부 학생들과 도서관계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견해들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해명하고 싶었다.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다른 관종의 사서들과 비교해서 어떤 근무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재미와 매력이 있는지 말하고 싶었다.

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학교도서관을 앞에 놓고 하는 선택에 영향을 주는 학교도서관의 오늘과 미래에 대해서 발표되고 회자되는 문헌정보학계내부 이야기들을 요약해보면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중 첫번째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견해인데, "학교도서관은 죽어있다"는 말이다. 즉 학교도서관의 현실은 상당수가 도서관으로서 제기능을 못하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말이다. 이런 견해는 자신의 초, 중, 고

등학교 시절 도서실에 대한 경험과 최근 주변 학교 몇 곳을 방문했을때 본 창고 같은 학교 도서실에 대한 경험이 밑받침 되어서 정설이 되어 있다.

둘째는 그래도 학교 도서관을 연구하거나 상당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널리 선전되는 내용인데, 학교도서관은 장차 아주 유망하고 발전 가능성이 큰 도서관이라는 것이다. 선진국의 예를 보아도 첨단 멀티미디어 기능과 도서 뿐만 아니라 시청각 교육자료, 기자재등을 포괄하는 학교교육정보센터의 기능을 갖춘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이다.

위의 첫번재 이야기와 두번째 이야기 언뜻 보기에 상반되어 보이나 학교도서관의 지금 당장의 현실이 열악하다는 상황파악에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견해 사이에는 단지 현실과 이상이라는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두번째 견해에 대해선 회의론적 입장에서 쉽게 반박이 가능하다. "누가 그렇게 좋다는 것을 모르나?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도서관인들의 희망사항이라는 커다란 꿈 아닌가? 선진국이나 미국을 모델로 비교할때 멋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육 현실에서 어느 세월에 현실화 될 수 있겠는가? 학교도서관의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존재하는데 누가 그것을 메울 것인가?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로 근무하게 된다면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대한 장미빛 환상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열악한 근무조건을 참아나가라는 것인가?"

위와 같은 견해에 기초하여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이상, 도서관계 사람들이 학교도서관 근무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특히 요즘 세대는 막연한 미래보다 분명한 현실을 중시하며 비합리적 희생을 요구하는 조직생활보다 합리적이고 안온한 개인생활을 추구한다. 사서들 또한 보장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거니와 확실한 현실의 길과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다. 도서관계에 논문과 경험담을 통해 진리처럼 퍼져있는 위와같은 생각들은 학교도서관에서의 근무에 대해 죽어있는 곳, 책 창고 같은 곳에 가는 것이거나, 투사와 운동가적인 심정을 갖고 있는 강인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쉽다. 그렇지 않다면 이도 저도 갈 데가 없어 어쩔수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곳 -그렇게 학교도서관에 간사람은 그곳에서 절치부심하여 다른 좋은 도서관으로 신분상승을 노리고 대기하는 곳-이상의 가치를 갖지 못하고, 결국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로 계속 남는다면 그러한 시도조차 실패한 이가 좌절과 절망을 안고 머물러 있는 곳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이야기조차 모두 다 미래의 아득한 꿈과 같은 이야기라고 도서관인들의 진로선택에는 아무런 현실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난 여기에서 철저히 학교도서관의 지금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결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내일의 이야기를 해서 헛된 기대와 꿈을 갖게 하려 하지 않겠다. 학교도서관을 당위성과 헌신만 가지고 강요하지 않겠다. 학교도서관에서 5년간 근무했고 앞으로도 어떤 사명감 같은 것으로 근무할 한사람의 도서관인이기 이전에 단칸방부터

맞벌이로 시작하여 화장실 두개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을 생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삼고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일반적인 가정을 이끄는 한사람의 가장이자 평범한 생활인으로서, 그동안 가려져있던 학교도서관 근무의 좋은 점과 매력을 이야기하고 학교도서관의 단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지면이 허락하는 한 상세히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 2. 그대 자신을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싶은가?

도서관계에서는 사서는 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서직은 전문직이라는 말이 많이 있다. 그러나 사서가 전문가라는 말을 가장 인정하기 힘들어 하는 집단이 바로 사서 스스로가 아닌가 한다. 이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마치 의사가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잘 찢고 잘 꿰매고 하는 일이라 정육점 아저씨나 수선집 아주머니도 약간의 요령만 아시면 잘 할 수 있을 거에요" 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직무를 잘고 행하는 자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다. 변호사가 "전 그냥 법원심부름 하는 거지요. 아무나 법대생 하나 데려다 놓으면 역시 이 정도는 할 수도 있지요."하는, 확고한 전문직의 위치를 자격취득 과정에서 또 사회적으로 이미 공신력과 인정을 받고 있는 자가 자기반성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이다.

사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은 도서관 밖의 인사들이나 문외한 행정관료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차라리 그들이 그런말을 한다면 야단이나 치고 싸울 수나 있지. 문제는 현장 사서들이, 그것도 말이 아닌 몸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사서들의 행동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그들은 자기인생을 스스로 전문가가 아닌 것으로 규정해놓고 아무 모순없이 살고 있다. 그러면서 말로만 전문직이니 어쩌니 한다. 그러니 웃기는 일인 것이다. 그렇다고 단순 기능직이나 생산직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근무조건의 열악함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확고한 노동자 의식을 갖고 대응하고 있지도 않다.

전문직과 단순직의 가장 큰 직무상의 차이는 자기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상당히 포괄적인 것이다. 단순히 의사가 이 환자를 다섯바늘 꿰맬까 여섯바늘을 꿰멜까 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서가 책의 분류번호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정도를 갖고 전문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정도면 어느 직업이든 다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가 전문직이라면 환자의 상태로 보아서 어느 병동으로 보낼지 아니면 이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실이나 수술실의 배치나 설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병원 건축이나 의사 수급체계에 까지 즉 정책에 대한 결정까지도 스스로 하거나 깊숙히 간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사서들은 어떠한가? 과연 이런 전문직으로서 누리고 관여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발언하는가? 발언할 의사를 갖고는 있는가? 발언하고 싶더라도 현실적인 의사결정 통로를 확

보하고 있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오히려 생각하기 귀찮은 문제라고 행정가들의 결정을 바라만보고 있지는 않은가? 도서관 정책이나 도서관 건물의 설계 등은 행정직들이 알아서 해줄 문제라고 생각고 있지는 않는가? 단지 책의 분류를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난 사서가 결코 전문가가 아니라고 사서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소규모 도서관을 기피하고 대규모의 설비와 인원이 갖추어진 도서관을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사서들의 모습에서 뼈저리게 느낀다. 그렇다면 똘똘한 사서들이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100명씩 모여 있는 대형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운영의 확고한 사서주도권이나 예산 등의 자율적 편성 권한, 도서관의 장기적인 비젼 등 그만한 큰일을 해내는가? 그만큼 전문적 능력의 영향 범위를 배가시켰는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전문직종이 여러 사람이 함께 근무해서 분업체제 속에서 근무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선호하는가? 지금은 미력하거나 업무의 효율을 위해 합동 사무소를 낼 지언정 결국엔 개인 병원, 개인 법률 사무소 등 개인적인 독립을 꿈꾸고 추진하지 않는가? 함께 근무한다고 할지라도 관련된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않는가? 혹 의사들의 대학 병원 근무 지향성이 우리의 대학도서관 편중성과 같아 보이는가? 그래서 대학 병원의 의사가 누구는 수술만 하고 누구는 진료만하고 누구는 주사만 놓는가? 선배 의사의 눈치에 눌려 잘못된 진료에 대해 눈을 감는가? 병원의 운영 원칙에 대해서 행정직과 예산 담당자들에게 눌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불만이 있어도 겨우 궁시렁 대면서 일하는가? 전문가로서 자신의 견해를 제대로 개진하지도 못하는가?

솔직히 말해보자. 사서라는 집단은 전문직 답지 않게 혼자서 일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혹은 그만한 실력도 능력도 자신감도 없는 것 아닌가? 혹 사서 스스로에게 도서관의 사회문화적 필요성과 절실성에 대한 생각과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어느 무의촌에 살게 된다면 의료 혜택을 못받는 그 곳의 주민들을 위해 자신의 전문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그 사람을 진정한 의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꼭 첨단 의료장비에 수술실에 간호사 까지 있어야만 환자를 돌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며 누군가가 병원 세워주기를 팔짱끼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의사라고 존경스럽게 볼 수 있을까? 혹 병원이 없다면 행정당국이나 마을 유지라도 설득해서 의료시설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전문가다운 자세일 것이다. 자신에게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그것을 활용할 법적인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라면 번듯한 사무실도 없는 어느 낙도에 떨어뜨려 놓아도 그곳의 사람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서들의 의식 체계와 행동양식은 과연 어떠한가? 큰 건물과 첨단 정보시스템 장비가 없으면 사서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기가 어려운가?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도서실 하나 만들기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조직해 본적은 있는가? 지금까지의 실제 사례를 보면 아무런 사서

자격증도 없는 지역의 도서관운동가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도서관에 '나의 일자리는 하나 안 생기나?'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나? 행정당국이나 기업의 도서관 설립만 그저 기다리는, 감나무 아래에 입벌리고 누워있는 한심한 사람의 꼴은 아니었는가? 행정과 제도 탓만하며 자신의 기술과 자격증을 썩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집단을 본적이 있는가? 난 과연 사서들이 그들의 자격증을 운전면허 자격증 만큼이라도 생각하는지 의심이 간다.

혹 자꾸 대학 입학 성적 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의사나 변호사와 비교해서 기분이 나쁜가,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대학 입학 성적이 비슷한 간호학과 졸업생이나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인 간호사, 영양사나 사범대 졸업생인 교사들과 사서들의 전문직으로서의 행동양태를 비교 해볼까? 더 비참한 비교가 이루어질 뿐이다. 전문직으로 사서들이 놓치고 있는 논점과 핵심을 간명하고 자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비교를 한 것이니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사서들의 비전문가적 사고 체계 즉 단순 사무직이거나 단순 기술자같은 사고는 학교도서관의 매력을 몰라보게 하는 커다란 의식의 벽이다. 도서관인들이 그정도의 교육과 분위기에 쌓여있는 한 전문능력 발휘의 기회로써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참맛을 알고 느끼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올해들어 비로소 공공도서관에 사서직이 도서관 운영의 책임을 지는 전문직관장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학교도서관이 생긴 40년 전부터 사서가 존재하는 현장에서 가장 전문가임을 인정받은 곳이 학교도서관이 아닌가 한다. 학교도서관은 전문직 관장제가 가장 먼저 도입되고 확고부동하게 정착된 유일한 관종이라고 하고 싶다. 겨우 한명의 사서가 근무하는 곳에서 관장이야 당연한 것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관종의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가 혼자 이기에 그 사서가 관장의 업무를 담당하는 가를 생각해보면 그리 당연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것은 사서이자 교사이기에 가능한 일인 것이다.

요즘 전문도서관이나 자료실에 근무하는 사서들이 연구원들과 칭호나 등급 등에서 같아지기 위해서 사서라는 이름과 자부심을 포기하면서까지 동렬에 서고자 하는 노력하는 사례들을 보았다. 그런 노력은 좋으나 그런 일이 사서라는 이름을 포기하면서 외형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이나 자료실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면에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는 아주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 즉 사서이면서 교사라는 두가지를 모두 법적으로 명칭적으로 내용적으로 당당하게 보장받고 있다. 사서교사의 전문성은 단지 명칭에서만 보장받고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 업무에 있어서도 도서관의 장기적인 계획까지도 스스로 작성하고 스스로 집행한다. 물론 걸림돌도 있다. 학교 경영자를 설득해야 하고 행정실장(서무과장)이나 학부모 대표, 학생회 등과도 밀접한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

는 학교운영의 중요한 주체들과 상대하는 것이야말로 관장의 직무가 아니겠는가? 사서교사는 도서관 운영을 책임지는 교내의 유일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은 예산의 한계는 몰라도 세부적이든 운영의 큰 틀이든 도서관운영 전반에 대해서 학교내의 그 누구로 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일반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교실의 절대적 운영자이고 책임자이듯 사서교사는 도서관에 관한 일만큼은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정해진 테두리안에서는 절대적인 재량을 갖고 있다. 물론 때로 도서관 업무에 관한 관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조요청이란 형태를 띠지 절대적인 지시나 명령이 아니다. 사서교사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그것은 사서교사의 자율적 권한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여 정도가 아니라 사서교사의 재량이 침해 받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교육현장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교장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서교사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려면 상당한 도덕적 부담감을 갖고 시작하여야 한다.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교육계에선 마치 일반 교사의 수업시간에 말꼬투리를 잡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장이라 할지라도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아닌 부당한 관여는 당연하고 일상화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일에 대해 사서교사는 법적, 도덕적 정당성을 갖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확고한 신분보장을 바탕으로 맞설 수도 있다. 사서자격증을 갖고 직장 초년생부터 도서관에 관한 이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관종은 오직 학교도서관 뿐이라고 본다.

자기 스스로가 도서관 전반에 관한 모든 결정을 책임있게 내려야 하고 실수와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 이런 것은 두려운 일일수 있다. 그 두려움은 인간생명을 앞에 놓고 메스를 들어야 하는 의사의 고독과 의뢰인의 요구와 법률 앞에 고뇌하는 법률가들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감을 갖고 실수가 없도록 자신의 지식과 판단력을 연마한다. 그러한 사회적 위치와 환경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을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도 도서관 운영, 업무 전반 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인 교육계와 이용자인 청소년 문화의 변화 추세에 대한 검토까지 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가운데 사서교사는 다양한 자기계발과 끊임없는 연구, 혹은 인간관계에 대한 자극을 어느 관종의 사서들 보다 심각하게 받는다. 그런 가운데 전문직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게되고 조직에서의 인정도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것이다.

### 3. 아름다운 인간관계, 영향력 있는 삶을 원하는가?

학교도서관에 관련된 논문이나 글을 보면 사서교사가 일반 교사들에 비해 큰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같이 부각된 점이 없지 않아서 가끔 질문을 받는다. "일반교사와 비교해서 월급이 적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질문이지만 최근 문헌정보학과 교수님에게서 조차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서 나를 더욱 슬프게 했다. 일반 교과 담당교사와 월급 체계가 완전히 일치한

다. 교직 수당, 학생지도비, 교과연구 수당등 모든 것이 똑같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봉급명세표에는 찍히지 않는, 교육개혁의 대상인 없어져야할 보충수업비－요즘은 "정보와매체"라는 책으로 사서교사용 보충수업을 하는 사서교사도 있다. －나 받아서 부끄러운 촌지가 없을 뿐이다.

오히려 사서교사는 학교사회에서는 일반 교사들과는 원할하고 대등한 동료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위적 자세에서 지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건 단지 연구소의 연구원들이나 대학의 교수들에 대해 보조적 지원관계에서 보이는 사서들의 종속적, 보조적 역할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사서교사"라는 직함과 그것이 갖고 있는 위력은 대학 도서관 사서와 비교해볼때 "사서교수"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위력이다. 만약 대학도서관 근무 사서의 염원이자 그야말로 꿈인 "사서교수"가 대학사회에서 법제화 된다고 상상해보라. 전문직 관장을 구걸할 필요가 있겠는가? 고참 사서과장이 더 젊은 후배 교수를 상관으로 모실 필요가 있겠는가? 중고등학교는 대학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현격한 본질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서교사"라는 직함이 주는 학내에서의 역학관계와 지위는 대학에서 사서의 교수 대우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대학에 사서로 근무하는 이들은 이런 경험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의미인지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굳이 쉽게 말하자면 교수들과 맞먹고 때론 교수를 한수 지도한다고 보면 적당할 것이다. 상상이나 되는 일인가? 그러나 초, 중, 고등학교에선 사서교사들이 이미 쟁취한 현실인 것이다.

학교에도 힘과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즉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국영수 등 내신과 입시에서 비중이 높은 교과의 교사라야 우대받는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결코 진실도 아름다운 삶도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서 오는 보충수업비나 교감교장으로의 승진이나 촌지를 바란다면 사서도 그만두어라 떡값을 행정직의 떡고물을 부러워하는 자세와 똑같은 것이다.

학교 운영의 중심을 이루는 교사들과의 관계도 이럴진대 나머지 학부모와 학생들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다. 사서교사는 사서 이기 이전에 교사이기도 하다. 학생들과 맺는 사제관계야말로 사서교사들이 가장 힘들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그야말고 정직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들이다. 그들은 입시에 중요한 도움이 되는 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곽에 서있지만 자신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특별활동의 교사들, 교과서 외의 것을 많이 제시해주고 함께 해주는 교사들을 또한 많이 따르고 오히려 진정하고 순수한 사제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원로 사서교사들은 평교사이면서도 제자들의 주례를 서기도 하고 그 한 학생의 인생에 전환점과 영향력을 주기도 한다. 그러한 학생들과의 하루 하루는 즐겁고 때론 아이들 문제로 상처도 받고 속도 많이 상하지만 자신이 원한다면 함께 아픔을 나누고 느끼면서 참스승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제자의 폭은 때론 전교생이 될 수도 있다. 너무 많은 학생을 상대함으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썰렁함은 도서부 학생들을 지도한다면 소수의 학생들을

담임보다도 오랜세월인 3년을 함께 보내면서 사제의 정을 나눌 수도 있다.

## 4. 소외되지 않는 노동을 원하는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현상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을 "노동의 소외" 라고 한다. 자본주의하의 노동은 자발적이고 창조적이기 보다는 강제적이며 노동자는 노동 과정을 거의 통제할 수 없다. 극소수의 전문직종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자아실현과 노동과정은 무관하며 단지 돈을 벌고 여가시간을 확보하며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산업사회가 갖는 생산성 향상의 깃발은 노동의 분업을 가져왔고 노동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전체 생산품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무 생각없이 만들어낸다. 노동자의 땀흘린 노동으로 이루어진 생산품이지만 직접 만든 노동자와는 무척 상관없는 물건이 되는 것이다. 나와 그 물건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다. 자신의 공들인 노력으로 태어난 노동의 생산물을 자신의 작품으로 예술품으로 바라보는 노동자의 눈길과 흐뭇한 미소를 보았는가?

대량생산의 산업사회를 넘어 정보사회라는 요즘 큰 도서관의 잘 짜여진 업무분장은 특정 주제의 전문 출판사가 외국의 어느 출판사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게도 해주지만, 도대체 이 책이 교수와 학생들에게 어떻게 읽혀지는지 등 업무의 통괄성에 의한 넓이의 전문성은 갖기가 어렵다.

이에 반해 사서교사들은 혼자 모든 도서관업무를 다함으로 인해 각분야의 전문서은 떨어지지만 다음과 같은 업무과정을 통해 소외되지 않는 노동을 해나간다. 사서교사들은 일단 스스로 도서구입 예산을 전체 도서관운영예산에서 결정한다. 그리곤 그 예산을 도서관의 필요와 시급성에 따라 각 교과별로, 또는 분류별로 적당히 배분한다. 그러다보면 워낙 작은 예산이기에 한 분야마다 많은 책을 종류별로 다 구입할 수는 없다. 그러면 도서구입에 대한 대강의 아웃트라인을 잡고 서점으로 직접 나간다. 예를 들어 글쓰기나 논술에 관한 분야의 책을 수서할 것이면 그 분야의 책들을 모두 다 빼 보며서 과연 어떤 책이 학생들에게 아니면 교사들에게 적당한 편집과 적절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가려내고 가려내서 구입할 책으론 단지 몇권을 고른다. 그리고 나중에 그 책이 실제로 예상만큼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직접 본다. 그러면서 수서시의 선택이 잘 되었는지 나의 판단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확인하게 된다. 다시 한번 부서간의 복잡한 업무 연락과 통계는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사서교사는 업무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다음의 업무를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업무의 흐름은 누가 시키거나 강제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울 뿐이다.

소규모 도서관의 작은 규모와 예산은 때로 사서교사에게 업무의 한계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과 예산의 "작음"은 "적음"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교도서관에서 대부분의 "작음"은 결코 한사람의 사서가 꼼꼼하고 정성되게 수서, 정리, 열람, 참고봉사, 더 나아가

교수학습 협력을 제공하기에 필요 이하로 "적음"이라고 할만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원과 행정규모에 맞지 않는 대량의 도서구입과 도서관 확장 등이 사서의 근무조건을 악화 시키고 사서의 창조적인 노동을 단순 노동화 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는가? 사서들이 타이피스트나 분류기계가 되가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사서교사들은 절대로 업자가 준 도서목록에 도서구입을 의존하지 않는다. 사실 그렇게 쓰기엔 너무나 작은 예산이기 때문이다. 책 광고와 서평, 교사들이 신청한 목록조차도 참고가 될 뿐이지 절대적이지는 않다. 모든 책들은 서점에서 사서교사의 현장 확인과 평가를 통해서만 구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서교사들은 자신도 모르는 책을 검토하지 않은 채 대량 구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른 책이 도서관에 들어오면 다시 누가 어떤 용도로 볼런지 다시 세심하게 상상하며 분류기호와 배가위치를 정한다. 책상위에 쌓인 책을 기계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가에 꽂힌 책은 늘 사서교사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다. 누가 보는지, 어느 정도 이용이 되는지, 열람지도와 대출반납의 과정에서 모든 책이 늘 점검된다. 사서교사 노동의 산물인 도서관의 책이 자기의 눈 앞에서 나의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에게 사용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성공한 책에선 사서교사의 흐뭇한 미소를 만날 수 있다. 예상과 빗나간 책에선 아쉬움의 한숨과 함께 그 원인을 찾기 마련이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사서교사의 노동조건과 보람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소위 학교에서 주요과목이라고 하는 과목의 교사들조차 본연의 교육과 거리가 먼 입시위주의 수업, 보충수업, 담임업무 등의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인해 교육자로서의 노동의 소외현상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그래서 일반 교과교사로 누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권리를 포기하며 사서교사 자격증을 어렵게 취득하여 사서교사로 전과를 추진하는 등 사서교사는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인간다운 교육, 하고 싶은 교육, 소외되지 않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인정받고 있다.

## 5. 여유와 레저와 자기개발을 원하는가?

교사를 왜 하는가 할때 방학때문이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현재 교사가 누릴 수 있는 거의 석달이라는 방학은 어떤 직종에서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리고 봄방학까지 합하면 거의 3개월에 해당되는 기간을 사서교사들은 나름대로의 가정생활, 여행, 레저와 공부 및 연구 등에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와 계획에 따라 월급을 받아가며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사서교사들은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례화된 재교육 과정이 그동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1997년 1월 어떤 관종의 사서들보다 최우선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멀티미디어 도서관 운영을 대비한 교육을 받음으로 해결되었다.- 이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스스로 연수계획을 짜고 심도있는 자율연수를 실시했다. 누가 연수를 시켜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과 연구를 담당하는 협의회 및 연구회를

구성하고 전문성을 연마해가는 도서관의 사서직군이 사서교사들 말고 어디 있는가? 물론 이것은 방학이라는 기간을 확보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방학이 교사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의도를 살린 당연한 활동이기도 한 것이다. 대학의 방학이 길기는 하지만 그것은 교수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도서관의 사서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방학중 대학도서관의 근무시간이 단축되기도 하지만 계속되는 업무량의 증가와 방학을 통한 도서관 서가이동 등의 대공사 등으로 대학도서관의 사서들에겐 방학이 여가를 즐기고 전문성 개발을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으로 허락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이 가질 수 있는 진로 중 방학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직업은 교수와 사서교사 뿐인 것이다.

## 6. 동지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가?

사서교사들의 모임에는 어느 사회단체나 도서관인들의 모임에서 보기 어려운 화기애애함이 있다. 이제 뒷전에서 팔짱을 끼고 있을만한 50대 어른들이 열심히 마우스를 조작하고 사서자격증을 취득할 당시 배우지 못했던 도서관자동화 프로그램들을 익히고 있다. 환갑을 바라보는 원로교사들도 새로운 도서관봉사형태를 배우기 위해 열심이다. 사서교사로 근무한지 30년이 된 분도 이제 갓 발령받아 1년된 사서교사도 모두 다똑같이 교사다. 서로 존대를 해주고 대등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관장들의 모임, 과장들의 모임, 계장들의 모임, 평사서들의 모임등으로 다른 관종의 사서들이 직급과 계급으로 인해 의사소통과 단일한 대오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본다. 그러나 사서교사들안에는 직급이란 없다. 승진이 없다는 것 어찌보면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하지만 교직사회의 무서운 장점이기도 한 것이다. 사실 승진을 하려고 해도 이미 도서관장인데 교장이 되지 않는 한 무슨 승진을 할 것인가? 암흑의 기간을 함께 헤쳐온 동지들이기도 해서, 직급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기에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는다. 사서나 교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했거나 방기했던 반성들도 서로 솔직히 나눈다. 난 자랑하고 싶다. 우리의 조직을. 누군가는 도서관계에 여자가 많아서 일이 안된다는 말을 하곤 한다. 그런사람들은 우리의 모임에 와보란 말을 하고 싶다. 회장, 부회장, 감사, 부서장 모두들 여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분들의 학교도서관과 조직의 활성화와 자기개발을 위한 연수 참여는 그야말로 눈물겹다. 서울시사서교사협의회가 임의 단체로 존재하던 시절엔 한동안 어떤 출장명령도 없이 일과시간이 아닌 토요일 오후, 방과후 저녁, 방학시간등을 통해서 만났다. 젖먹이나 어린아이들을 이곳 저곳에 맡기고 자기돈을 들여가면서 연수에 참여하는 사서교사들을 보고 있노라면 서로 힘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독신으로 평생 학교도서관과 결혼하여 한 평생을 바치고 있는 선배교사들이 있다. 이미 학교나 교육계에서 자리를 튼튼히 잡으셨기에 궂이 모임에 참가하실 필요가 없는 사서교사분들도 후배들을 격려하기위해, 계속적인 정진을 위해 집안 대소사를 마다하고 달려오

신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와 사서교사 전문성 고양을 위해 애쓰는 동지들이 바로 이렇게 여기 많이 있는 것이다.

## 7. 이제 남은 일은?

학교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처럼 전문직 관장을 보장받아놓고 몇년을 팔짱끼고 있다가 갑자기 서두르지 않는다. 사서교사들은 개인적으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보았자 도서관이다. 학교에서 도서관외에 사서교사들을 보낼 곳이 어디인가? 양호실로 보낼 것인가? 상담실로 보낼 것인가? 무엇이 두려운가? 교육현장의 몰이해와 무지 속에 입시위주의 교육과 싸워온 확실한 투사로 단련된 사서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사서교사들은 전국을 통틀어 공식적으로 170명에 불과하다. 사서로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분들을 포함해도 겨우 200명 밖에 안되는 가장 적은 수의 교사집단이고 사서집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조직이 대상인원의 80퍼센트를 확보하고 있는가? 월례모임과 몇일 간의 방학연수에 50퍼센트의 조직원이 상시적으로 참여하는가? 우리의 조직 뿐일 것이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그 한사람 한사람이 20년, 30년 학교에서 훨씬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학교도서관을 만들고 지켜온 분들이다. 그분들은 이미 확보해낸 공간을 발판으로 계속 학교도서관을 일구어 갈 것이다. 가장 확실한 조직력, 튼튼한 신분보장,도서관 운영의 전문성과 재량권, 교육적 당위성, 여론을 이끌어내고 제도를 하나하나 고쳐 낼 수 있는 치밀한 기술적 능력 등이 우리의 확실한 수단이고 무기다.

사실 학교도서관계의 사서교사들은 지난 10년간 조직적인 활동을 중단한 적도 있었다. 그것은 도서관계에 학교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교육계에 조직적인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 학교도서관을 침체 시키고 학교도서관에 대한 필요이상의 오해를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들은 최근 2-3년 사이에 학교도서관 현장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사서교사들을 비롯한 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꾸준한 노력과 각계의 도움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여 교육개혁안에 학교도서관 문제를 포함시키고, 몇십년을 끌어온 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을 이끌어 내는 등 학교도서관을 제도적 차원으로 수렴하고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대한 영향력을 도서관계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체 사회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선배 사서교사들이 지키고 일구어 온 이 공간을 앞으로는 더욱 알찬 신세대 일군들이 메꾸어 나가길 바랄 뿐이다. 문헌정보학계와 학부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사서교사로서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헌정보학 졸업생들의 일자리 몇개, 밥그릇 몇개가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다. 학교도서관엔 민족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달려있고, 학교도서관은 청소년들을 더 옥죄는 사회와 입시교육의 해결점이 될 수 있고, 과외로 짓눌린 사교육 열풍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아직 특권층의 도서관이랄 수 있는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에 대하여, 시민들의 일상에 파고드는데 아직

고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비해,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으로 다녀야 하는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도서관문화가 민중속으로 침투하고 보편화될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학교도서관은 교과서 교육과 대중언론의 한계를 넘어선 교양과 바른 역사인식은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와 자주화 올바른 통일을 이루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기도 할 것이다.

많은 이들로 부터 특히 이미 여러도서관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들로부터 어떻게 사서교사가 될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고 있다. 도서관 현장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교사적 지위와 사서적 지위를 동시에 누리면서 한평생 살아나갈수 있는 학교도서관 담당 사서교사의 위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함께 자리옮김을 심각히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곧이어 이 땅의 가장 큰 관종으로 위치할 학교도서관을 기대한다. 그것은 이글을 읽고 학교도서관을 부럽게 바라볼 한사람 한사람의 힘으로, 학교도서관의 전문직 관장으로써 한걸음 한걸음 그 전문성을 키워나갈 미래의 사서교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글을 보는 분들은 더이상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난날의 편견과 선입견을 퍼뜨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혹 학교도서관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그것도 문헌 "정보"학과에서 사서교사 지망생의 싹을 자른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최신의 정보를 후배들에게 특히 학부생들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진정한 전문가로 살고 싶은 많은 사서 지망생들이 학교도서관을 자신이 도전해볼만한 관종으로 여겼으면 좋겠다. 더이상 "사서교사가 다른 교사와 같은 월급을 받나요?" 하는 황당한 질문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사립중고등학교들의 개별적인 채용의 확대뿐만아니라 공립학교의 임용고시를 통한 대량채용을 추진하고 있고 1년이내에 이 역사는 시작될 것이다.